

구미-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'예타통과'

- 경북 구미~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(21.2km, 1조 5,627억원), '29년 착공
-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11월 27일(목)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(기획재정부 주관)에서 구미-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'예타')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 - 구미-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,
 - 국토교통부는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에 해당 노선을 반영('22.1)한 바 있다.
 - 동 사업은 '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' 사업이 특별법*에 따라 예타 면제('23.10)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,
- * 『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』('23.4, 제정) 제29조
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'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(KDI)하였으며, 경제성 분석(B/C),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(11.26)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.
 - 구미-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'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'의 교통수요(일평균 2만대 예상)에 대비하고,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·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,

-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('23. 선정)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*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(근무자 약 8만 명), 연간 46조원 생산

- 국토교통부는 “구미-군위 고속도로는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·성주·구미·군위·영천을 잇는 대구·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”이며,
 - “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·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, 이르면 '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-지방간 교통 격차 해소를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도 로 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대 (044-201-3875)
		담당자	사 무 관	김봉길 (044-201-3877)
		담당자	전문위원	차상욱 (044-201-3886)



참고

구미-군위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

- ◇ (사업구간) 경북 구미시 원평동(구미JCT)~대구 군위군 효령면(군위JCT)
- ◇ (사업규모) 왕복 4차로 신설, L = 21.2km
- ◇ (총사업비) 1조 5,627억원 *에타 기준

